‘두려움’은 죄가 없다

(사무엘상 15:24~35)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
28.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30.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은 죄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두려움은 죄가 없다’

‘두려움은 죄가 없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두려움은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럽다’라는 뜻인데 자연을 두고 죄를 운운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두려움에 의해 쫓기지도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저항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두려움은 단지 관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관계’란 내 마음의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욕구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담게 되는데 그 때에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두려움이 없는 것은 잃어버리면 큰일이라고 느낄 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증거이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인데 텅 빈 마음으로는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가짐으로 나는 내가 될 수 있으므로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괴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두려움은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뛰어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마크 트웨인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해서 두려움이 나를 해방시켜주고 희망이 나를 가둡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간평등사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가정이 깨질 위협도 있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운동을 계속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바뀐 것입니다. 목숨과 가정을 잃는 것이 두렵지만 조국이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들을 대체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두려움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마음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마음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독립 운동가들이 목숨을 잃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잃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인데 이렇듯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소중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상 두려움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단지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두려움의 경중을 따져서 더 귀한 두려움 참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을 택할 뿐이지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10: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어디를 읽어보아도 참 두려움과 거짓 두려움을 구분합니다. 참 두려움으로 거짓 두려움을 대체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상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두려움과 금지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에 질식하듯이 억눌려서 쫓기듯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두려움에 대해 용기를 내어서 극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살핀 다음에 그 두려움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

를 가려내야 합니다.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십니다.
즉, 부모와 처자와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을 잃을까 갖는 두려움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선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별 선언을 듣게 된 사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4절에서 읽은 대로 사울의 반응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 하였나이다’라고 하는데 범죄 한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라고 하는데 이것이 범죄의 내용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고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니 지금은 하나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읽어보면 사무엘을 강권해서 기어코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소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사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데 이게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과 사울의 역학관계를 보면 먼저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 응답으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로 보았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는데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도 백성들의 요구 위에 서있는 왕의 지도력과 수행능력을 돕는 능력의 출처일 뿐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백성이었기에 백성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왕이고 백성들은 사울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처럼 빛을 발하며 나타나서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차지하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그 마음을 잃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현실로 느끼는 관계에서만 잃음과 얻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상태가 가장 무섭고, 하나님

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극렬한 심판이 주어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하나님께 가장 칭찬 받을 상황인데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데 역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결별선언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상실을 두려워했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잃는 것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도 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두 번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자 백성들의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다가 옷이 찢어지는데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할까 두려워하자 하나님도 잃고 그 주신 것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기에 마땅한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맡기기에 마땅한 자가 아니므로 찢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족이 소중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제2의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가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얼른 그 두려움의 원인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사업의 두려움이 생기면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쫓겨나셨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서 매달리고 있다면 결국 사업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두렵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갖지 않은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과의 관계에서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돈보다도 하나님이 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고, 자식에게 좀 무슨 일이 있고, 사업에 좀 적신호가 보이기만해도 신경이 곤두서고 밤잠을 못 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처럼 자식처럼 건강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참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잃을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경외이고 참 행복이고 평강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데 이처럼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잃는 것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가짐으로 두려움을 안겨 줄 만큼 이 세상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두려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세요. 이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졌을 때에는 이미 그것들과의 관계가 깊어진 상태입니다. 얼른 십자가를 보고 지금 내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죽으세요.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곳으로 마음이 따라가서 하나님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소중한 것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 떨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이 소중해서 하나님을 잃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떨면서 사는 자들의 두려움 속에는 행복과 평강 있으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사울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두려움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쫓기며 하나님을 두 번 버리며 완전한 결별로 스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건강 잃을까 두려워했고 가족이 잘못 될까 두려워했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만큼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갖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올인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